

# 저수지 메워 축구장 건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남구, 진월저수지 7천평 야구·풋살 등 복합운동장 추진  
주민 설문 “복지·환경에 도움 찬성”... 환경 단체 “즉각 철회를”

광주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일부를 메워 조성할 예정인 복합운동장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도심 속 저수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오랜 기간 방치된 저수지인데 아파트 건립이 아닌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큼 운동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

19일 광주환경운동 연합은 “진월저수지를 매립해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시 남구는 진월동 140번지 일대에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에 앞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그대로 둔 채로 축구장 1면을 조성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축구장이 들어서는 부지의 인근 아파트에 야간 조명과 소음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남구는 변경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변경안에는 진월저수지 일부를 매립해 2만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사업비 타당성·환경·동식물성 조사 등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저수지를 매립하고 운동장을 조성하면 당초 부지에 비해 더 많은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하며, 저수지를 정비해 수변공원 등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판

단하고 있다. 진월저수지는 과거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현재는 비농사를 경작하는 곳이 없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도 남구 변경계획의 이유다.

하지만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시작되자 환경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2009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 저수지 등은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일대 18만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해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주는 도심 저수지의 효과는 전혀 무시하는 개발방법이다”고 비판했다. 또 단체는 “남구가 저수지 쓰레기투기 및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을 들어 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영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진월저수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건강한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진상조사위, 행불자 찾기 첫 발

민주묘역 3기 유전자 채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첫발을 땀다.

19일 5·18조사위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1980년 5월 당시 희생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분묘개장 및 유전자검사 시료 채취를 실시했다.

이날 5·18조사위는 5기의 무명열사묘 중 3기의 분묘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이번 시료채취는 전남대법의학 교실에서 그동안 진행된 DNA조사에서 3기의 시료가 모두 소진됐고, 발견된 유전자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라 5·18 조사위의 설명이다.

안종철 부위원장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 40년간 기다려온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조사위가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며 책무”라면서 “행불자들의 유해를 반드시 확인해 유가족이 40년간 간직해온 슬픔을 위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총 11기의 무명열사 분묘가 있었으며, 지난 2002년~2006년까지 실시된 DNA조사에서 6기의 신원을 확인한 적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전자 검사 전문가들이 무명열사 묘의 유골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기온 뚝... 감기 조심·코로나 더 조심

광주·전남 오늘 아침최저 6~11도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떨어져 다시 쌀쌀해 지겠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지기 시작하고, 21일 아침에는 내륙(구례·곡성 등)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지역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 내외이고,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2~6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분포하겠다.

20일 낮까지 흐리던 광주·전남 지역은 이날 밤부터 차차 맑아 지다 21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일요일인 22일은 오전중 한차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20일 새벽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남구 ‘U-도서관 구축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스마트도서관 4호점 본격화

광주시 남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내 스마트도서관 4호점 구축 본격화에 나선다.

남구는 19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에 관내 스마트도서관 4호점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남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U-도서

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서 3년 연속 선정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관내 스마트도서관 4호점 건립 사업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푸른길 공원 비스포킹 뒤 광장에 관내 첫 1호 스마트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올해 7월 무등시장에 두 번째 스마트도서관을 선보인 바 있다. 또 올해 연말께 문을 열 예정인 스마트도서관 3호점은 주월동 남광주농협 맞은편 푸른길 공원 쉼터 인근에 조성 중에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교원소청심사위 “공익제보 교사 해임 취소하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던 광주 명진교(도연학원) 손규대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 알렸고, 12월 3일 결정문을 보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 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손 교사에 내려진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것은 사학개혁을

바라는 원칙적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교 법인 이사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면 손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 어려운 학교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며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어느 사립학교에서도 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만 큼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시 북구, 언택트 AI 실무인재 양성 교육생 모집

광주시 북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언택트 인공지능 실무 인재 양성에 나선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22일까지 ‘인공지능 매치업 온라인 교육과정’ 2차 교육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북구와 전남대 평생교육원이 맺은 ‘인공지능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기간은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입문

(AI기초수학·AI기초프로그래밍) ▲공통(심층학습·기계학습입문) 2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70% 이상을 학습한 교육생에게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모집대상은 북구 주민등록자, 북구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북구 소재 기업 재직자이며 전남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우리는 이겨낼수있어요

광주시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활기찬 도시, 행복한 웃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  
코로나가 아얏갔지만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 달빛소나기

2020. 11. 27 Fri  
광주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1월 25일까지)  
대상: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봉사자 및 문화관련분야 관심 많은 대학생 및 일반시민 (20~39세) 모집인원: 신청은 50명  
참가비: 없음 (의류비용충당) 참가방법: 이메일(주소: yys318@hanmail.net)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1220-0541, 0588

주최·주관 **영남일보** **광주일보** 후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